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번호 | | | | 3 | | | | 제 () 선택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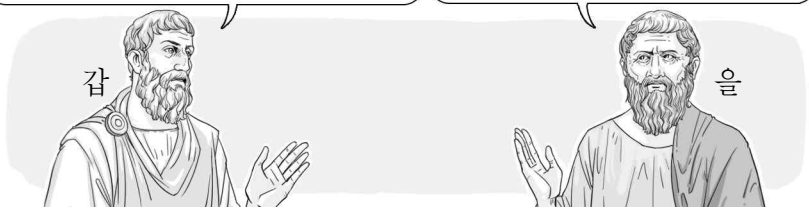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을: 윤리학의 주된 목표는 경험적 탐구를 통해 도덕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 ① 갑: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언어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
- ② 갑: 도덕규범을 정립하여 도덕적 삶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 ③ 을: 도덕적 관행은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 ④ 을: 도덕 현상의 경험적 탐구로 당위적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도덕 문제의 객관적 서술이 윤리학의 중심 목표이다.

2.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죽음은 감각이 상실되는 것으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상관이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야 비로소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① 갑: 죽음의 고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 ② 갑: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악이므로 회피해야 한다.
- ③ 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 ④ 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 ⑤ 갑, 을: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세를 대비해야 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법이 있어도 권력이 없다면 또는 권력이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을: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권리를 누리기가 어렵다. 이에 사람들은 재산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 사회의 일원이 된다.

- ①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 불가하다.
- ② 국가는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만들어진 합의의 산물이다.
- ③ 국가는 선한 본성을 타고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국가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 권력체이다.
- ⑤ 국가는 자연의 산물로서 인간의 도덕적 삶을 목적으로 한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다수자에게 호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할 때에는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을: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 주로 행해지며, 불복종이 언제 정당화되는지를 알려 주는 간단한 도덕 규칙은 없다. 한편 우리는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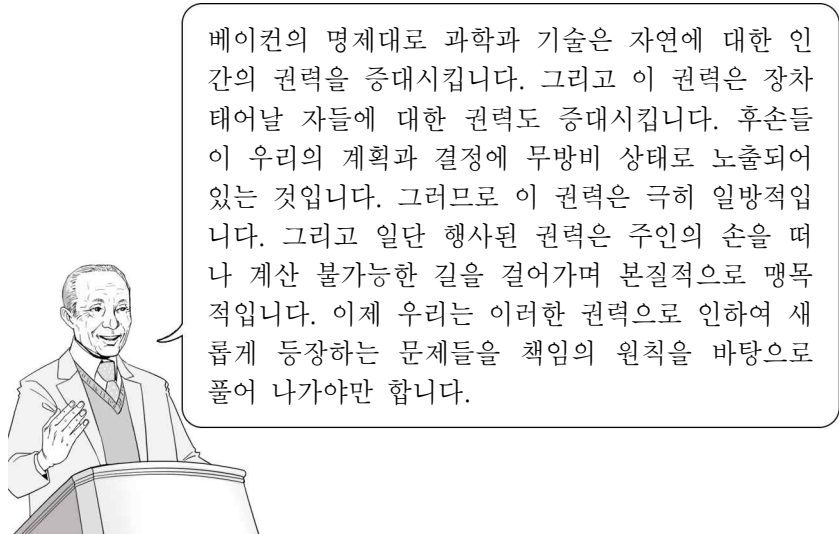
- ① 갑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과 제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는 결과와 무관하게 의도의 적절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시민 불복종을 다수의 정의관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시민 불복종자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항의에 대한 국가의 보복적인 억압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법과 제도의 부당한 정도에 반비례한다고 본다.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물을 창출하는 약한 인공지능(Weak AI)은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저작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에 한해서 법적으로 보호돼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인공지능이 창출한 생성물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식화한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더라도 독창성만 인정되면 저작물로 봐야 합니다. 향후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넘어서서 독자적 사고를 하는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 개발되면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이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을: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인공지능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성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창작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 ①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독창성을 지닐 수 있는가?
- ②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가?
- ③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생성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 ④ 강한 인공지능의 생성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가?
- ⑤ 약한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모두 저작물로 보아야 하는가?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베이컨의 명제대로 과학과 기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권력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장차 태어날 자들에 대한 권력도 증대시킵니다. 후손들이 우리의 계획과 결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은 극히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행사된 권력은 주인의 손을 떠나 계산 불가능한 길을 걸어가며 본질적으로 맹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권력으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풀어 나가야만 합니다.

< 보 기 >

ㄱ. 기술 권력 앞에 인류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ㄴ. 기술 권력 행사의 결과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ㄷ. 기술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ㄹ. 기술 권력의 크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요구는 비례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갑: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분포로 얻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함을 의미한다. 을: 차등의 원칙은 정형적 원리이며, 이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이다.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범 례 >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A -- 아니요 --> C{C} C -- 예 --> E[을의 입장] </pre> |

< 보 기 >

ㄱ. A: 분배 정의를 실현하여 자연적 우연성을 없애야 하는가?
 ㄴ. B: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분배는 정의로운 것인가?
 ㄷ. C: 자발적으로 양도된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ㄹ. C: 사회는 협동 체제가 아닌 개인 간 자발적 교환 체제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관계적인 윤리는 도덕에 대한 남성의 주된 관심이었던 이기심 대 이타심의 대결을 넘어선다.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는 '다른 목소리'를 찾으려 할 때 도덕 논의에 있어 주된 문제는 어떻게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수립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살피려는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로 전환된다.

- ① 여성의 도덕성 발달의 핵심 요소는 도덕적인 추론 능력이다.
 ② 남성과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여 도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③ 여성의 도덕성은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④ 여성의 도덕성은 상호 의존성보다 이타심으로 함양해야 한다.
 ⑤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을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개인 간의 관계를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되므로 합리적인 설득으로 집단 간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이 병행되어야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 보 기 >

ㄱ. 사회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 사회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ㄴ. 사회적 억제가 없으면 사회의 이기적 충동을 없앨 수 없다.
 ㄷ. 사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도 본질적으로는 비도덕적이다.
 ㄹ. 사회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 사적 소유, 분업, 계급적 사회관계는 자유로운 노동을 억압하고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을: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 마음을 쓰는 자는 다스리고, 몸을 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이고,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는다.

- ①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향유한다.
 ②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자발적 노동으로 욕구를 충족한다.
 ③ 을: 백성은 통치자가 인의를 상실해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④ 을: 백성의 생산물 교환은 사익 추구로서 삼가야 할 행위이다.
 ⑤ 갑, 을: 경제적인 요인은 도덕적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성인은 무위(無爲)로써 일을 처리하고, 만물을 자연에 맡겨 자라게 하되 간섭하지 않고 기르되 소유하지 않는다.
 을: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고 변한다는 법(法)을 알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병: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부터 서게 한다. 자기를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이 어짊(仁)의 방도이다.

- ① 갑: 도(道)를 체득하기 위해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야만 한다.
- ② 을: 해탈하려면 만물이 상호 독립적인 실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③ 병: 도덕적인 삶을 위해 다른 이에게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 ④ 갑, 을: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⑤ 갑, 병: 선(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전쟁의 폭력성과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이다. 영구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인어야 하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며,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① 비민주적 국가에 대해서는 폭력적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
- ② 평화 조약 체결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
- ③ 국가는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환될 수 있다.
- ④ 어떤 전쟁도 도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 ⑤ 국제 국가를 구성하여 국제 연맹을 형성해야 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세상으로 나아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것과 필연적으로 연관된 위험에 내던져져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집의 보호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한다. 극단적인 긴장 관계로 맺어진 이 두 측면은 똑같이 필요하며, 세계라는 외부 공간에서의 노동과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서의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내적으로 건강해진다. 그렇기에 인간은 집을 짓고 그 집을 방어하면서 든든한 공간을 마련해야 할 절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 보 기 >
 ㄱ. 집에 단지 머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거주가 될 수 없다.
 ㄴ. 집이라는 내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ㄷ. 집은 외부 세계와 구분되지 않는 안락한 공간이어야 한다.
 ㄹ. 집은 공적인 영역으로서 타인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통일 문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줄어들고 인구와 국토의 증가로 인해 경제 규모가 커지며 나아가 국가 신뢰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 통일 문제는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겪지 않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우리에게 도덕적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유기체가 지닌 목적 추구 능력이다.
 을: 자연 중에 생명은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병: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신의 이익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존재들을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편견에 불과하다.

(나) Diagram showing three circles: 갑 (top), 을 (bottom left), 병 (bottom right). Arrows A, B, C, D, E, F connect them. Legend: <법 레>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 <예 시> ㉠ → ㉡,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C: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에 대해 의무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F: 개별 생명체보다 생명 종(種)의 보존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D: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C, E: 유정성(有情性)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님을 간과한다.
- ⑤ D, F: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